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1월 18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양준모 | www.cubs.or.kr

<대테러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오해와 진실 시리즈 ④>

## 파리 테러 전후 전 세계 IS '소프트타겟(Soft Target)' 테러 현황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

### 1. 들어가는 말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테러는 그 대상이 민간인이며, 피해 규모 또한 대규모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테러에 대한 직접적인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민간인, 즉 방어능력이 없는 상태의 대상을 공격 목표로 하는 테러를 '소프트타겟(Soft Target)' 테러라고 한다. 정부 기관이나 군사시설 등 방어능력을 갖춘 '하드타겟(Hard Target)'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소프트타겟 테러는 민간인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테러행위로 하드 타겟에 비해 반격의 위험성이 적어 테러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불특정 다수를 노리기 때문에 대중들의 공포심리가 극대화되어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전에도 또 이후에도 IS에 의한 전 세계 '소프트타겟' 테러는 꾸준히 그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작년 IS가 온라인 영문 선전지 '다비크(Dabiq)'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군 합류국을 '십자군 동맹국'으로 칭하며, 공격 대상으로 삼았는데 대상60개국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어 한국도 테러 청정국의 지위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테러는 IS에 의한 아시아 지역 최초의 테러라는 점과 자생적인 테러리스트에 의해 감행된 점으로 보아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 관련법 정비 등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 글은 지난 11월 파리 테러 전후, 약 4개월간 IS에 의한 전 세계 소프트타겟 테러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소프트타겟 테러 방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전 세계 IS에 의한 '소프트타겟' 테러 현황

#### ① 터키 앙카라 자살폭탄 테러(2015. 10. 10)

프랑스 파리 테러가 발생하기 약 한달 전인 2015년 10월 10일 터키 수도 앙카라 기차역에서 두 차례의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했다. 테러로 인해 102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당했다. 터키 당국은 용의자 시신에 대한 DNA 검사 결과 용의자 1명은 유누스 엠레 알라교즈로 확인되었으며, 유누스는 2015년 7월 20일 터키와 시리아 국경 수루츠에서 친쿠르드 사회주의청년연합 학생활동가들을 상대로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해 34명을 숨지게 한 세이 압두라만 알라교즈와 형제간임이 밝혀졌다. 이들 형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인 터키 아드야만주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시리아에서 IS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②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 러시아 여객기 추락사건 (2015. 10. 31)

2015년 10월 31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공항을 출발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향하던 러

시아 메트로제트 항공사 여객기가 이륙 23분 만에 추락해 224명이 사망했다. 사건 직후 IS는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여객기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도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 사고가 IS 테러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후 수니파 무장조직 IS 또한 자체 영문 홍보잡지 '다비크'를 통해 러시아 여객기를 추락시키는 데 사용했다는 급조폭발물 사진을 공개하면서 러시아 여객기 사고가 IS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 ③ 레바논 베이루트 자살폭탄테러(2015. 11. 12)

2015년 11월 1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사상자가 200여 명에 이르렀다. 폭탄테러는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인 부르즈 알 바라즈네 남부 부르즈 알 바라즈네 거리 두 곳에서 연달아 발생했다. 범행 현장 인근에서는 폭탄 테러를 감행하려던 세 번째 테러범이 발견돼 검거 되었다. 첫 번째 테러범은 시아파 회교 사원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폭탄 조끼를 터뜨렸고 두 번째 테러범은 인근 제과점 밖에서 자폭을 감행했다. 테러 직후 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며 세 명 중 두 명은 팔레스타인인이고 한 명은 시리아인이라고 밝혔다.

### ④ 프랑스 파리 테러(2015. 11. 13)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는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IS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일거에 불러일으킬 만큼 충격적이었다. 2015년 11월 13일 밤 9시 10분경, 프랑스 파리의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 파리 북부의 일드프랑스(Ile-de-France),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Stade de France) 근처 등 최소 7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이다. 테러 사건 발생 장소는 금요일 밤을 즐기기 위해 모인 대형 콘서트장 및 축구장 등으로 피해규모가 비교적 컸다. 최소 세 건의 자살폭발과 여섯 번의 총격이 있었고 바타클랑 극장에선 최소 60여명의 인질이 붙잡혔었다. 이후 인질극은 종료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130여명이 사망했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테러를 IS 소행이라고 밝혔으며, 사건 발생 직후 IS도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 ⑤ 시리아 하사카 주 테러(2015. 12. 30)

2015년 12월 30일 시리아 동북부 하사카(Hasakah) 주에서 쿠르드족 거주 지역인 카미실리의 식당 3곳에서 폭탄이 연달아 터졌다.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 에 의하면 이번 테러는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연쇄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35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IS를 지지하는 아마크 통신도 카미실리에서 일어난 연쇄 폭발은 IS가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부터 미군의 지원 아래 YPG가 시리아에서 IS 격퇴 작전을 벌이는 가운데 IS는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테러를 벌이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연쇄 폭발이 일어난 곳은 기독교 신자들의 거주지로 시리아 정부가 관할 중이라고 밝혔다.

### ⑥ 이라크 바그다드 자살폭탄테러(2015. 1. 11)

2016년 1월 11일,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쇼핑몰과 인근 지역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민간인 50여명이 희생당했다. 외신과 이라크 당국에 의하면 IS 소속으로 보이는 무장괴한들이 이날 시아파 주민 집중 거주 지역인 바그다드 동부의 한 쇼핑몰을 공격해 18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당했다. 이라크군과 경찰은 테러범 2명을 사살하고 4명을 체포했지만, 이 과정에서 적어도 4명의 경찰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바그다드 북쪽 90km에 있는 마을 무크다디야의 한 카페에서 2건의 자살폭탄 차량의 공격으로 24명이 숨지고 52명이 부상당했다. 사건 직후 IS는 인터넷으로 성명을 발표해

쇼핑몰과 무크다디야 차량폭탄 공격이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 ⑦ 터키 이스탄불(2015. 1. 12)

터키 이스탄불 관광지 술탄아흐메트 광장 주변에서 2016년 1월 12일 오전 10시20분쯤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탄불 시 당국은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후 터키 당국은 이번 테러로 인해 민간인 10명이 사망했고, 이번 테러는 IS에 의한 것이며 사상자 대부분은 독일인 관광객이라고 밝혔다. 또한 터키 당국은 사건 현장의 시신들을 조사한 결과 자폭한 사람은 1988년생 시리아 남성이며, 최근 시리아에서 터키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인근에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있었으나 1명이 손가락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 외에는 피해가 없었다.

### ⑧ 인도네시아 자카르타(2015. 1. 14)

2016년 1월 14일,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IS에 의한 테러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고급 호텔, 카페 등이 몰린 번화가에서 폭발과 총격이 일어났으며, 이날 카페 안에서 3명이 자살폭탄을 터뜨렸고 유엔 사무실과 시리나 대형쇼핑몰 앞, 경찰서 앞에서도 폭발이 발생했다. 테러로 인해 8명이 사망했다. 자카르타 테러의 특이점이 아시아 지역 최초의 IS에 의한 테러라는 것과 IS에 가담한 현지인의 지령 아래 이뤄졌다는 것이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의 총책이 벨기에 국적의 IS 조직원으로 밝혀진 데 이어 이번 자카르타 테러의 총책도 인도네시아 출신임이 드러나면서 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한 소프트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IS에 합류한 외국인의 출신국은 100개국 이상이다.

## 3.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구촌 곳곳 이슬람 무장단체 IS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는 이제 상수가 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 테러 전후 4개월 동안 민간인 1000여명이 테러로 희생되거나 부상당했다. 소프트타깃 테러 외에도 이라크 라마디, 안바르 지역, 리비아 자폭테러, 주아프간 파키스탄 영사관 테러 등 정부 기관이나 군을 상대로 한 하드타깃 테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는 아시아 지역이라는 점과 테러 총책이 인도네시아 출신의 자생적 테러리스트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해 글로벌 회계·컨설팅사인 KPMG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집계하는 변화대응능력지수(Change Readiness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점수는 0.649(1점 만점)로 25위다. 한국정부가 범죄·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100점 만점에 50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적으로 IS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보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카이로 알아흐람센터 칸달 박사와 같은 세계적인 테러전문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등 아시아가 이제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역설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는 테러 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대테러법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테러 관련법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불행한 사태는 방지해야 할 것이다.